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고창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후 상수관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상수도 보급률 상승과 함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내년도 환경부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을 투입해 81.87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고, 상수관망 545km에 대한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에 설치된 상수관로는 총 연장 1254km에 달하며, 이 중 약 11%인 147km에 달하는 상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잦은 누수발생과 유수율(상수도가 각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창군 정수장에서 생산된 총 송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을 나타내는 비율인 유수율은 53.8%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전국 평균인 8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중간에 땅 속으로 새어 나가는 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 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누수를 또한 41.6%에 달해 지방공기업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창군 상수도 누수발생 건수는 7027건으로 복구비용만 23억여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왔다.
 또한 누수 발생 시에는 상수관의 정확한 매설 위치를 찾기 어려워 복구를 위한 굴착공사 때 관 훼손과 상시적인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상수관 부식으로 15년~2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는 등 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박우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노력해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 사업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에만 총 32회에 걸쳐 중앙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유력인사들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을 실감해 협조를 구하는 등 각별한 열정을 쏟아 마칠내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고창읍을 비롯한 21개소에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상수도 관망을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 구성하고 블록별 수량과 수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유수율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블록시스템은 또한 상수관망에서의 수압, 유량, 수질 등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관로의 개량, 교체, 관 파손사고, 관 세척과 같이 단수가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군은 블록시스템 중요지점에 유량계, 수압계 같은 감시시설과 감압밸브 등 제어설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수관리가 가능토록하고 재해에도 강하고 복구하기에도 쉬운 배수관망을 형성해 복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버려지는 수도물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박우정 군수는 "노후 상수도 현대화는 사업비가 매우 커서 군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지만 가뭄 시 용수 공급과 반복되는 용수부족 문제를 비롯해 땅 속으로 버려지는 어마어마한 수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내년도 환경부 신규사업 대상지역 선정 394억 투입 2022년까지 사업 완료키로

지역에 설치된 상수관로의 11% 20년 이상돼 누수 잦고 유수율 떨어져

블록별 수량·수압 실시간 감시 고창읍 비롯 21개소에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에서 수압 등 현황 파악 용이 신속한 단수 필요 유지 업무 처리 가능

사업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비 확보로 현재 53.8% 수준에 불과한 유수율을 오는 2022년에 85%까지 끌어올려 지방상수도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갤러리 I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암서예관 감암 송성용전	